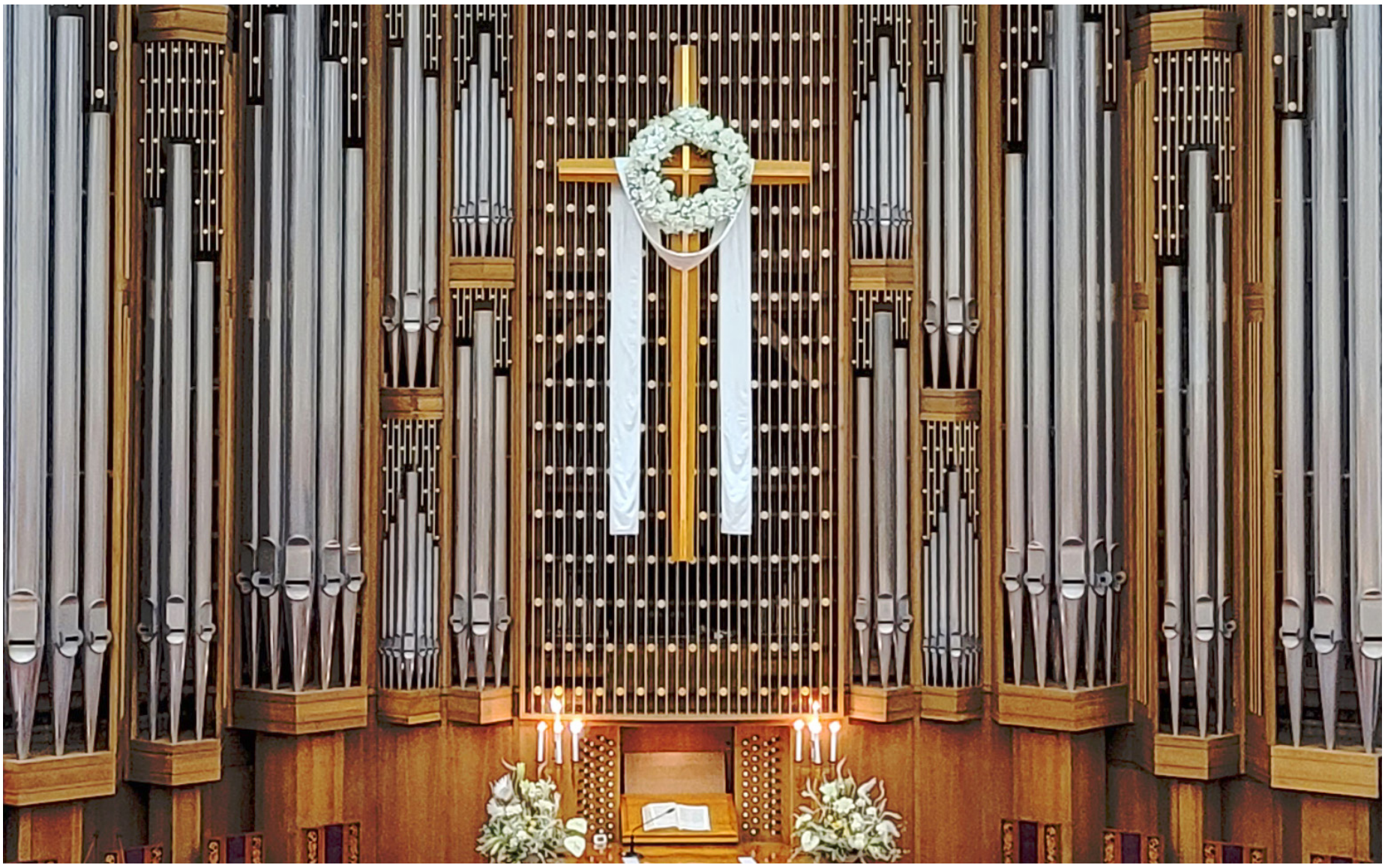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70 YEARS 1953-2023 | 광림교회 KWANGLIM CHURCH

등록번호 다-467 / 발행인 김정석 /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 www.klmc.church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 복음으로 온 세상 환하게

4월 9일, 기쁨과 소망의 2023년 부활절 예배

4월 9일, 오늘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이 되는 부활주일이다. 부활절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찬양하는 절기이다.

부활절과 관련된 절기에 사순절, 종려주일, 고난주간, 성금요일이 있다.
사순절 기간에 광림교회는 매일 새벽 5시와 6시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를 열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고난주간은 종려 주일부터 부활하시기 전까지 일 주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되새기는 절기이다.
성금요일(Good Friday)은 부활절 직전 금요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며, 광림교회에서 성도들은 금식으로 고난에 동참하며 4월 7일(금) 저녁 8시 <성금요 성찬예배>에서 성찬식을 거행했다.

부활절 예배

광림교회는 부활절 예배를 1부(오전 7시)부터 5부(오후 4시 30분)까지 광림교회 본당과 광림남교회, 서교회, 북교회에서 동시에 드린다. 성전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하얀 세마포가 드리워지고, 예배마다 성가대들은 부활절 특별찬양을 드린다. 오후 7시 30분, 저녁예배는 본당에서 미가엘 성가대·연합오케스트라 주관으로 부활절 음악예배를 드린다.

광림교회 남선교회총연합회(회장 박기연 장로)에서는 4월 9일 부활주일 1부~4부 예배 전에 교회 정문과 압구정대로 주변에서 '부활절 택시전도데이' 행사를 한다. 교회에 올 때 광림의 성도들은 자가용 대신 되도록 택시를 이용하며, 거스름돈은 받지 않는다. 성도가 택시에서 내릴 때 행사위원들이 택시기사에게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부활절 선물을 준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김정석 담임목사는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상처와 아픔을 싸매주시고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난민들과 안디옥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광림의 성도들은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광림미술인선교회는 2023 부활절 기념 정기전 'TOLLE LEGE'를 개최한다. 4월 9일(부활주일) ~ 4월 30일(주일)까지 장천갤러리에서 미술인선교회 회원 17명의 작품을 전시한다. 고난주간·부활절 십자가 전시회가 'Pray for Türkiye·Syria'라는 주제로 4월 2일 ~ 4월 9일까지 본당 로비에서 정혜레나 작가의 철제 십자가 조각과 윤석경 작가의 도자기 십자가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부활절을 기념해 CTS 주관으로 광화문광장 부터 서울광장까지 오늘 오후 2시에 '2023 부활절 퍼레이드'를 개최한다. 예수 부활의 기쁨을 기독교인은 물론 일반 시민도 함께하는 거리문화 전도축제로 진행되며 퍼레이드와 기념음악회 등이 열린다.

이정순 기자

2 광림의 강단 믿음으로 용서하라
3 광림 스토리 전교인 춘계 산상기도회
4 하나님을 만나다 여선교회 선교바자회
5 믿음의 현장 광림호스피스 교육
7 다음세대 청년부 예수제자캠프
8 복음, 문화와 만나다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믿음으로 용서하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행 7:60)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행 6:15). 그는 매우 온유하고 천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보다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의 최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행 7:59~60).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용서했습니다. 더 나아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60절) 라고 기도하며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변화될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도 언젠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용서를 불러오며 그 사람의 가능성을 믿게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마음이 없다면 먼저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를 묵상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중보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54~60

54.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5.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 대 57.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59.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첫째, 용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는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증인들이 있어야 했고 재판의 과정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에는 모든 과정들이 무시되었습니다. 군중들은 스데반의 말에 격노했고 순식간에 매우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격노한 그들은 거룩한 예루살렘이 거짓 선지자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58절에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데반에게 더 무겁고 큰 돌을 던지기 위해서였고, 또 하나는 이 모든 일의 책임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일을 뒤에서 조종하고 사람들을 선동한 것이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자신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 이 모든 일의 주동자인 사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신 예수님을 따라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감정의 끈을 잡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용서의 참 자유를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심리학자 딕 티비츠(Dick Tibbits)는 용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당신을 다시 삶의 운전석에 앉게 해준다. 용서는 틀을 다시 짜서 당신의 삶의 이야기를 바꿀 수 있게 해준다. 무엇보다도 용서는 당신을 치료한다. 용서는 과거의 상황이 당신의 현재를 지배하지 않도록 가르친다."

스데반은 과거나 현재에 사로잡혀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이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참 평안과 자유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스데반은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는 많은 군중들 앞에서 성 밖으로 끌려 나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의 사회적인 지위와 관계성이 파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의 생명이 파괴되는 순간입니다. 왜 스데반을 반대했을까요? 스데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기 때문입니다. 즉 죄책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스데반을 죽인 것입니다.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게 한 스데반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사라진다고 그들 마음속에 있던 죄책감도 사라질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용서하지 못할 상황 앞에서도 무릎을 꿇습니다. 죄 뒤에 가려진 연약한 영혼을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 자신도 연약한 영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남을 위해 용서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 더 나아가 중보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스데반이 축복된 인생이었던 이유는 그의 사역이나, 순교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중보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남을 용서하고 축복하며 중보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길 위해 기도합시다.

셋째, 용서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스데반이 용서한 사람들 가운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완악한 핍박자였습니다. 그는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 또 민족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였고,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없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중보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현장에 있던 바울을 변화시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성서학자들은 초대교회는 스데반을 잃고 바울을 얻었다고 합니다. 스데반을 잃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의 순교를 통해 청년 사울이 회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최후는 비참했지만, 그의 최후는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용서와 중보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도 알게 해주었습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다른 사람이 새로운 생명과 사명 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죽음은 최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은 "용서는 신선한 시작이며, 새로운 출발에 필요한 분위기를 창출하는 매체다"라고 했습니다. 용서는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용서는 성숙한 신앙인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용서는 단절되었던 것, 분열되었던 것, 미워하고 질투하며 시기하는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 입니다. 오늘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 구하십시오. 다시 시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영상은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전교인 춘계 산상기도회

4월 15일(토), 오후 5시 광림수도원에서

2023년 전교인 춘계 산상기도회가 4월 15일(토)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광림교회 전교인을 대상으로 광림수도원에서 개최된다.
산상기도회는 일년에 두 차례 봄과 가을, 광림수도원에서 열린다.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되기도 하고,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본당 대예배실에서도 열렸지만 이번 춘계산상기도회는 광림수도원에서 열린다.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김정석 담임목사는 "광림수도원에 많은 교인이 올라가서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한다. 나라와 교회, 각 가정의 기도제목, 그리고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안디옥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행사를 주관하는 남선교회총연합회(회장 박기연 장로)에서는 기도회 전에 가족들과 함께 와서 기도동산을 산책하고, 각 개체 선교회 월례회를 갖길 권유하고 있다. 예배에 앞서 준비찬양은 엔테오스 찬양단이 인도하며, 남성성가단과 바리톤 이현규 집사, 소프라노 정혜민 성도가 찬양을 할 예정이다.

지교회를 포함하여 각 선교구별로 버스가 운행되며, 참석자들에게는 간식을 제공하고 교육국에서는 어린 자녀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박기연 장로는 "이번 행사 포스터에 '참, 기도하기 좋은날'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4월은 총력전도의 달이며, 교회 내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벗고 예전의 예배회복을 바라고 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 개인의 영적성장과 개체선교회의 부흥이 있기를 바라며, 또 김선도 감독님의 묘소도 참배하고 봄 기운이 가득한 수도원에서 영적 시간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득섭 기자

친교와 선교의 장 '루체 포레' 카페 재오픈

지역 사회에 주님의 향기 전하는 선교의 장

'루체 포레'(Luce foret) 카페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3년 동안 열지 못했다가 실내를 재정비하고 다시 오픈했다. 2014년 광림교회 사회봉사관 1층에 커피 향기와 함께 지역 사회 쉼터와 성도들의 만남의 장소로 문을 연 루체 포레는 'Luce'(빛)을, 'foret'(숲)을 의미한다.

루체 포레는 단순한 카페의 기능을 넘어 교회와 사회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교회 각 부서의 크고 작은 모임들을 가질 때 이곳을 이용하고 있으며, 대외적인 행사에도 만남과 휴식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성도들 뿐만 아니라 BBCH홀, 장천홀 공연 관람객과 많은 이웃들이 함께하며 선교의 통로로 쓰임 받고 있다.

온타임 큐티로 봉사의 의미를 더하다

루체 포레는 직분을 맡은 조별 팀장을 중심으로 3개조로 나눠 운영한다. 봉사자들은 신앙 중심으로 매일 조별 오픈 30분 전 한정희 사모의 인도로 One Time 30분 예배로 시작하며, 루체 포레가 친교를 넘어 주님의 선한 영향력이 펼쳐지는 장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루체 포레는 오전 10시 30분(화~주일)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각 조별로 3~4명의 봉사자와 자격증을 소유한 바리스타 1명이 함께 봉사한다. 43종의 메뉴와 성도들이 기부한 '오늘의 스페셜' 메뉴를 판매하고 있다. 카페 내에는 10여 명이 함께 모일 수 있는 5개의 큰 테이블과 200여 개의 좌석이 있고, 소규모 연주가 가능한 무대에는 업라이트 피아노와 음향시설 등이 있다.
또한 카페 내에는 다양한 신앙 서적, 일반 서적 등이 판매되고 있는 '빛의 숲' 서점이 커피향기와 함께 성도들의 신앙의 깊이를 더하며 문화생활을 돕고 있다.
성도들과 함께 봉사하는 한정희 사모는 "봉사자 모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봉사 인원도 알맞게 예비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각자 원하는 시간에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어 더욱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

다양한 문화행사 기획

루체 포레는 BBCH홀, 장천홀 관람객 등으로 성도들과 청년들의 접근성이 좋아 무대 활용의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작은 무대를 필요로 하는 성도들과 지역사회에 열린 하우스 콘서트 플랫폼 카페로 사용되길 바라고 있다. 이미 2019년 12월 '루체 포레 캐럴음악회'로 지역 주민들과 성도들에게 큰 호응을 받은바 있다.
앞으로 루체 포레는 주님의 향기 가득한 친교와 선교의 장으로 휴일(월요일)에는 일반 대관도 받을 예정이다.

이상희 기자

포토 뉴스

부활절 음악예배
4월 9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미가엘 성가대·연합오케스트라 주관 음악예배를 드린다.

교회학교 부활절 행사
부활절을 맞아 교육관 입구에서 빈무덤을 통과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고난주간·부활절 십자가 전시회
4월 2일부터 9일까지 본당 로비에서 전시되고 있다.

담임목사 동정

3/28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3/30	육군사관학교 신우회
4/4	강남지방 교역자회의
4/7	성금요성찬예배
4/9	부활주일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무너진 안디옥 개신교회에서 상한 마음 위로 연주

하나님의 사랑 전하는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부활주일을 맞아 3부 예배 헌금송 연주자로 선 송솔나무는 뉴욕 줄리아드와 스위스 로잔 국립음악원에서 공부했으며 카네기홀과 링컨센터에서 독주회를 하는 등, 117개국에서 연주한 세계적인 플루티스트이다.

이력만 보면 평탄하게만 살았을 것 같지만, 사실 그의 인생에는 많은 굴곡과 어려움이 있었다. 아버지의 회사 부도로 갑자기 미국으로 건너가 가난한 불법체류자인 막내 이모부 댁에 얹혀 살았고, 학창시절 괴롭힘과 인종차별을 경험했다. 쉬는 시간이면 아이들을 피해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듣게 된 아름다운 소리가 밴드부 교실에서 흘러나온 플루트 소리였다. 혼자 저가 플루트와 음반을 구입하여 무조건 소리를 흉내 내며 연습하다가 무작정 보호자도 없이 줄리아드 예비학교 시험을 쳤는데 기적적으로 합격자 2명 중 한 명이 되었다.

그 후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다. 하지만 그는 유명한 연주자가 되기보다는 마음과 영혼을 지키며 사랑의 소리를 내는 연주자가 되고 싶었다. 그는 내전으로 고통 받고 있는 보스니아에 들어가 봉사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인생의 깊은 울림의 연주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신앙적인 체험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마음의 소리를 내는 법을 배웠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만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다니며 연주하게 되었다.

그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국경을 넘으며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현지에 7개의 물자보급 창고를 운영 중이다. 그곳에서 크리스천 청년들과 함께 난민에게 물자를 공급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 지진이 났을 때,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이 소식을 듣고 함께 일하던 구조팀과 함께 차량으로 27시간을 운전하여 안디옥에 왔다. 그곳에서 광림교회 긴급구조팀과 함께 구호활동을 했다. 무너진 안디옥개신교회 앞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는 플루트로 '오 신실하신 주'를 연주했다. 지진의 폐허 속에서 울려진 연주는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멋진 무대에서의 연주보다 가장 어려운 곳, 황폐한 곳에 달려가 구호활동과 또 아름다운 연주로 위로하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발견하게 된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PRAY FOR
Türkiye · Syria

대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시리아,
안디옥 개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안디옥 개신교회는 2000년 6월, 광림교회에서 이슬람 국가인 튀르키예 안타키아에 초대교회 이후 최초로 봉헌한 개신교회입니다

현지에 파견된 광림교회 긴급구호팀

튀르키예 구호금 계좌

우리은행 1005-803-992104 (기독교대한감리회광림교회)

계좌 이체시 입금자명에 '교구 + 성명 + 터키 '(예시: 1교구 김광림 성도 → 1 김광림 터키) 표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구호물품은 현지에서 구입해서 전달합니다.

기도제목

1. 강진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신음하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2. 지진으로 인한 부상자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건물에 매몰된 생존자들이 속히 구조되며 더 이상의 여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3. 강추위와 전염병의 위험에서 이재민들을 지켜주시고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조작업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현지의 필요(대피처, 운송수단, 음식, 담요 등)에 따른 도움의 손길이 신속히 전해지게 하옵소서.
4. 어려운 환경에서 헌신하고 있는 구조대원과 구호팀 및 의료팀, 현지 선교사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5. 지진의 위험 가운데 안디옥 개신교회 장성호 선교사(광림교회 소속)와 교우들을 안전하게 대피하게 하시고 구호 사역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진 교회와 교우들의 생활 터전이 속히 재건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6. 안디옥 개신교회 난민 구호팀이 원활히 활동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게 하옵소서.

광림교회 KWANGLIM CHURCH 70 YEARS 1953-2023

2023 선교바자회

튀르키예 난민 및 안디옥교회 성도를 위한 모금바자

·일시: 2023.4.25(화) ·장소: 밀레니엄광장

참여가 선교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신 예수님의 선교명령이 2천년 후 우리교회로 연결되었던 광림 안디옥개신교회의 성전을 우리 손으로 다시 짓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안디옥 성도들의 생활터전 회복과 지진피해 난민들을 돕는 우리의 바자회가 성전건축의 초석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선교회총연합회

광림교회 숨은 조력자 ⑤
예배위원회

예배의 기쁨을 전하는 성전 문지기, 이성곤 권사

언제부터 어떻게 예배위원으로 봉사하게 되었는지요?

2022년부터 예배위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내인 박홍인 권사로부터 전도를 받고 이후 광림교회에서 집사가 되면서 결심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맡기신 사역에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집사로 임명된 후 임원전지훈련에 들어갔을 때 김정석 담임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 오신 집사님들은 모두 교육부 봉사는 꼭 하세요."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초등부 교사로 첫 봉사를 시작했고, 이후 28교구(현 27교구) 총무와 남선교회 간사, 실업인선교회부 총무, 올해는 예배위원 2년차와 27교구 디모데 개체 선교회장직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배위원으로 섬기며 감사했던 일은?

예배위원이 되기 전에는 예배에 늦지 않게 주일성수하고, 봉사직분에 맞는 주일 모임 챙기는 정도에 의미를 뒀는데요. 예배위원이 되고서는, '예배의 성스러움'을 깨닫게 되었고 예배를 안내하는 문지기로서 받는 은혜가 정말 큽니다.

사실 저는 인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멀리서도 아는 분이 지나가면 굳이 달려가서 인사하는 성격이라고나 할까요. 입구에서 주보를 나눠 드리면서 한 분 한 분 눈을 맞추고 그렇게 예배의 기쁨을 안내하는 봉사라서 너무 좋습니다.

가끔은 담임목사님께서 예배당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눈인사와 함께 격려 말씀을 주시기도 하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성전에서 봉사할수록 오히려 제가 더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인도해주신 정하원 장로님과 임시호 권사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앞으로 예배위원으로서의 섬김과 계획 또는 당부는?

축복의 물줄기가 성전의 강단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성경 말씀처럼 그 물줄기가 시작되는 곳을 지키는 성전의 문지기(예배위원)로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성도들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 광림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또 사회와 나라에 퍼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전 3:16) 하셨으니 일상생활에서도 제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삶이 곧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섬김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유병권 기자

제27차 광림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광림호스피스선교회는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상한 이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고자 한다. 말기 암환자들과 중환자를 대상으로 평안하게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인 고통의 경감을 위해 돌보고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안에서 남은 삶을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투병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가족에게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다가가고 있다. 환자와 가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과 소망을 갖도록 지지해 주고 끝까지 투병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광림호스피스의 목적이다.

국내 최초의 호스피스는 1965년 강릉 갈바리의원에서 시작되었다. 국내 호스피스는 미국, 대만, 일본 등에 비해 앞서 도입되었으며 주로 종교적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는 1998년 창립되었으나 군의관 출신이자 목회 상담을 전공한 故김선도 감독과 간호사였던 박관순 사모는 이보다 앞서 치유사역인 호스피스 선교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다. 이에 세브란스병원에서 직접 정식 호스피스 교육을 받게 되고 1991년 광림교회 호스피스 선교회를 설립하게 된다. 이듬해 60여 명의 광림 호스피스선교회 회원들도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식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본격적으로 봉사를 시작했다.

호스피스선교회 초대회장인 김분한 장로(전 한양대 간호대학 교수)의 13년 간의 수고와 헌신이 호스피스 선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섬김을 이어오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3년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은 중단되었으나, 광림호스피스선교회는 꾸준하게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의료원, 사랑의 집, 성도들의 가정에서 호스피스 사역을 감당했다.

광림호스피스선교회는 31년 동안 서울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서울의료원, 사랑의 집(광림노인전문요양원) 등에서 활동했다.

제27차 광림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이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23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광림교회 사회봉사관 5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광림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은 호스피스 봉사를 원하는 분,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는 분, 호스피스 교육만 원하는 분, 암 환자 임종 목회에 관심이 있는 분, 광림교회 교인이나 타교인, 종교를 불문하고 원하는 분은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5주 강의를 수강한 모든 수료자에게는 김정석 담임목사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로서 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은 5주에 걸쳐 이루어지며, 각 분야에서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강의를 담당한다.

30년간 광림호스피스 사역에 임하고 있는 이혜림 권사(광림호스피스 선교회 회장)는 "호스피스 사역은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와 삶의 목적을 알게 해준 귀한 사역"이라며 "슬프고, 낙심되어 고통 속에 있을 때 누군가 살며시 다가와 내 손을 잡아주고 함께 한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붙잡아 주어야 할 사람은 없는지요? 호스피스 사역은 말기 암과 같은 불치병을 앓고 있는 가족이나 환우를 찾아가 두렵고 낙심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투병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일입니다. 아픔을 겪고 있는 가족이나 환우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라고 했다.

광림호스피스 선교회는 故김선도 감독의 유지에 따라 올해는 광림남교회에서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행한 후 광림남교회 호스피스 선교회를 설립할 예정이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에 더 많은 성도의 관심과 기도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문의 이혜림 권사 010-2353-2409
한경희 권사 010-7195-7640

박희윤 기자

교육일정 및 내용

날 짜	시 간	강의 내용	강 사
4월 25일 (1주)	1:30~2:00	개강예배	노정현 목사 (서울대병원 원목)
	2:10~3:30	호스피스 개요 및 현황	김분한 교수 (한양대 명예교수)
	3:40~5:30	암에 대한 이해	김진섭 원장 (좋은아침외과)
5월 2일 (2주)	1:30~3:30	암 환자의 신체돌봄 및 통증관리	양아름 코디네이터 (보봐스병원 호스피스)
	3:40~5:30	호스피스 돌봄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이혜선 교육부장 (광림호스피스선교회)
5월 9일 (3주)	1:30~3:30	노인의 죽음 이해 및 죽음준비교육	정상기 웰다잉강사 (푸른노년문화연구소)
	3:40~5:30	암 환자의 심리와 영적 돌봄	강희정 코디네이터 (서울의료원 호스피스)
5월 16일 (4주)	1:30~3:30	연명의료 결정과 생명윤리	박진노 병원장 (전 보봐스기념 병원)
	3:40~5:30	임종 및 사별 가족 돌봄	최화숙 목사 (은혜와 사랑의교회)
5월 23일 (5주)	1:30~2:00	광림 호스피스 설립배경과 역사	박관순 사모
	2:10~3:30	자원봉사자의 자세 및 역할	이혜선 교육부장 (광림호스피스선교회)
	3:30~4:00	자원봉사자 사례발표	이혜림 회장 (광림호스피스선교회)
	4:10~	수료식 및 종강예배	김정석 담임목사

※ 자원봉사를 원하시는 분, 가족 중에 암환자가 계신 분, 교육만 원하시는 분, 암환자 임종 목회에 관심이 계신 분 등 누구나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회현장

뿌리 깊은 나무에 맺혀지는 부흥의 열매

정명환 목사 (뉴질랜드 광림교회)

뉴질랜드 땅을 밟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뉴질랜드에서의 목회여정이 4년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어느날 새가족 등록 카드를 살펴보는데, 지난 4년 동안 받은 새가족 카드가 70여 장이 되었습니다. 인원으로 환산하면 어른 기준으로만 100명이 넘습니다. 찬찬히 헤아려보니, 잘 정착하여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 약 80여 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 거 아닌 숫자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민교회에서는 쉽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러는 중에 뉴질랜드의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또는 호주로 이동하신 분들도 꽤나 많이 계셨습니다. 이민교회가 마주한 상황입니다. 금새 만났다가 금새 헤어지는 것.

그리고 지난 4년의 시간 속에서 절반인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국교회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이곳 뉴질랜드는 아예 모임이 통제되어 2년간 약 30주 이상 주일예배를 아예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옆집에 방문하는 것조차 금지되었던 초유의 락다운 상황으로 인해 대면심방은 아예 불가능하고, 전화심방만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곳 뉴질랜드의 한인교회들도 어려운 교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전체적으로 회복되지 못한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뉴질랜드 광림교회는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뿐만 아니라 더 큰 부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모여서 기쁨으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요즘 교회에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입니다.

이 모든 부흥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더불어 한국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주시는 김정석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광림이라는 이름의 정체성을 확고히 세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뿌리가 있음이 귀하다는 것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코로나와 그 이후의 회복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체험 속에서 뉴질랜드 광림의 모든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라는 영적 기반 위에, 광림이라는 신앙 정체성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날마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자 힘써 나아가고 있습니다.

광림서교회

4월, 복음을 전하다

광림서교회는 4월 총력전도의 달을 맞아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트리니티 성경공부 이후 교회 인근 아파트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토요일은 교회학교를 중심으로 호수공원에 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림서교회 모든 성도가 전도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며 관계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월 둘째주는 부활주일을 맞아 <부활 그리고 생명>이라는 주제로 시온성가대의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티켓을 준비하여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고, 찬양을 통해 부활의 생명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4월 30일 총력전도주일 저녁예배에는 임선주 찬양사역자를 초청하여 찬양간증집회를 진행합니다. 전도대상자들을 초청하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도 총력전도의 달을 맞아 4월 한 달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부활주일 미니체육대회와 역할극, 버블·벌룬쇼와 보물찾기 등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학교 앞 전도와 관계전도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4월 한 달, 부활하신 예수님,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며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광림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아라 전도사(광림서교회)

광림북교회

스데반, 마리아 가족페스티벌

지난 3월 19일(주일), 3040 젊은 부부들을 위한 스데반, 마리아 가족페스티벌이 광림북교회 2층 루체 포레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부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식사 교제 시간으로, 2부는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즐거운 예배와 교제시간으로, 3부는 다양한 선물과 경품을 통해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 날 행사를 통해 새가족 김성주 성도님 가정이 등록하며 기쁨이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여건으로 함께하지 못했던 스데반, 마리아 선교회원들이 오랜만에 한 자리에 둘러 앉아 서로의 삶과 신앙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데반, 마리아 선교회는 광림북교회의 기둥과 같은 든든한 선교회입니다. 매 주일 저녁예배가 찬양의 밤으로 진행되어지는데, 스데반, 마리아 선교회가 찬양팀(스마일 워십)을 결성하여 주일저녁예배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3년 전에는 스데반, 마리아 선교회를 중심으로 차량기금을 모아 교회승합차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교사로, 꽃꽂이선교회로, 성가대로 선교회원들이 교회 곳곳에서 꼭 필요한 봉사를 감당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서로의 가정을 깊이 알고, 자녀들의 신앙과 삶에 대한 기도제목을 선교회와 속회모임 때마다 나누며 가정을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광림북교회 주변 민락지구에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광림북교회 스데반, 마리아 선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며, 지역의 젊은 부부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유민재 전도사(광림북교회)

18교구 남성속회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속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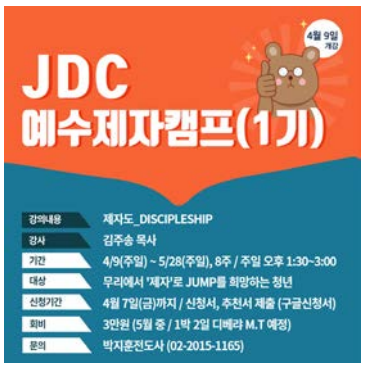
속회는 교육, 전도, 친교, 봉사가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복음 전도의 현장이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잠시 멈추었던 18교구 남성연합속회가 3월 30일(목), 김병남 장로 가정에서 열렸다.
이날 박영균 목사(6선교구)는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시 14:1~7)는 제목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피난처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여 어떤 고난과 환난중에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말씀을 전했다.
18교구 남성속회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연합속회로 예배를 드렸으나 참여인원이 적고, 다른 속회의 속도원들과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 교구내 남성속원 모두가 함께 모여 연합예배를 드림으로 주안에서 따뜻한 정을 나누고 교구가 더욱 부흥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18교구 교구장으로 헌신하고 있는 박찬규 권사는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남성속회예배를 드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의 마음을 가지고 속회예배를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2023년 한해에 18교구 남성연합속회가 부흥되고 성장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장소를 제공한 김병남 장로는 "수술이후 다닐 수 없도록 건강이 안 좋으셨던 권사님 한 분이 속회에 참석하셔서 매우 기뻤습니다.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간 속회 식구들의 간절한 중보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이후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속회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백명순 기자

청년부 예수제자캠프 봄학기 개강

무리에서 제자로 믿음의 도약을 이루는 LFC 청년공동체



2천 년 전 예수님 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무리'입니다. 그들은 인공위성처럼 일정 거리를 두고 예수님 곁을 배회하였으며, 그분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고 권위 있는 말씀을 귀로 들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의 것을 포기한 채, 일정 기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송 받은 삶의 자리에서 부탁하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광림교회 LFC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년들을 '무리'에서 '제자'로 양육하기 위하여, 2023년 상반기 JDC(Jesus Disciple Camp/예수제자캠프)를 진행합니다. 4월 9일(주일)~5월 28일(주일)까지 총 8주 동안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청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8가지 필수적인 주제(구원의 확신, 교회, 예배, 속회, 성경, 기도, 선교, 헌신)와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청년들은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동시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얻으며, 일상생활에서 제자의 정체성을 지켜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을 이수한 청년들은 청년부 임원이 되기 위한 기본 자격을 갖추게 되고, 향후 부르심에 따라 속장 혹은 사역팀장 등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봄학기 JDC(예수제자캠프)에 참여한 청년들이 3개월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탈바꿈되어 파송 받은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영욱 전도사(청년부)

7교구 남선교회

남선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회

7교구 남선교회 연합모임이 3월 25일(토) 오후 5시 신동우 장로댁에서 선교구 목사와 남선교회 개체선교회 회장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새해가 시작된 지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전체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교를 하면서 선교회 부흥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함께 토의를 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3선교구를 담당하는 선영진 목사는 '예수의 마음을 품은 성도'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라는 표현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심은 자리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종으로 사셨다. 또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전했다.

예배에 이어 참석자들이 각자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교구장인 이경환 권사는 "현재 전도사가 부재한 가운데서도 모임을 위해 수고한 분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가 이제 안정궤도에 올라선 만큼 7교구 남선교회 모임도 부흥되길 바란다"고 했다.

선교회장인 한 권사는 "명단에는 있지만 선교회 활동을 하는 성도는 많지 않다. 연락을 해서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모임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한 집사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스데반 선교회장인 김영관 권사는 "10여 년 전 처음 전체 모임이 나갔을 때는 나이차가 있는 사람이 많아 어색함을 느꼈는데, 지금은 모두 자연스럽게 받아 들여진다. 젊은 스데반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득섭 기자

신앙 간증

새가족 교구로 인도해주신 주님

청년부 5교구(새가족반) 속장 김건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여러 봉사들을 해왔지만 그 봉사들을 하는 시간 중에도 진실로 주님을 향한 마음은 없었다는 사실을 군대에서 말년 병장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며 다시 처음부터 주님을 위한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전역을 하고 보니 광림교회 청년 새가족 반에 있는 분께서 저에게 새가족 일을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고 권면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가족 사역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여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호렙산에 올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사역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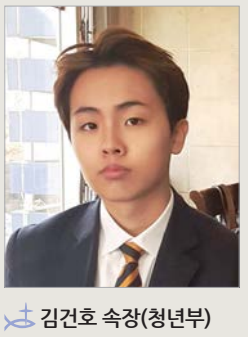
그런데 호렙산 20일차가 되어도 기도를 할 때마다 새가족 교구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새가족을 섬길 자격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새로 오는 분들을 섬기며 안내하겠습니까? 그런 사역은 정말 멋있고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에게 어울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잘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 은혜로운 일을 경험하는 것뿐이라고. 네가 정말 은혜로운 일을 경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너를 사용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을 결단하고 새가족 교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계획적인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년부 교구 대부분을 경험했었는데 저는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새가족분들이 어떤 속회에 들어가면 좋을지 기도하며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통해 주님을 믿지 않던 여동생이 주님을 찾게 해주셨고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다시 교회에 돌아오게 되어 함께 새가족 속회를 하며 새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정말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사 55:8~9)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에벤에셀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김건호 속장(청년부)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28

예수와 유대 지도자들의 논쟁 막 12:17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로마법을 어기는 발언을 유도해서 그를 잡아 죽일 음모를 꾸몄다. 당시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는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거나 말거나 아무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로마법을 어기게 하여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고발할 심산이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물었다. "당신은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는 바리새인들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유를 알고 있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는 나라들은 모두 로마 화폐를 사용했고, 로마에 세금을 내야만 했다. 만약 예수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유대 사람들이 반감을 보일 것이고,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몰리게 된다. 당시 반역은 로마 총독이 사형에 처하는 큰 죄였다.
예수가 바리새인들에게 말했다. "왜 나를 속이려고 드느냐? 왜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느냐? 너희가 세금 내는 돈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들은 예수에게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 한 닢을 건넸다. 다시 예수가 바리새인들에게 말했다. "이 동전에 새겨진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냐? 그리고 이 위에 새겨진 이름은 누구 이름이냐?"
이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했다.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자 예수가 그들에게 단호히 말했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대답은 로마에도 유대인에게도 책잡힐 게 없는 절묘한 답변이었다. 말문이 막힌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를 떠났다.

이번에는 지식이 풍부한 사두개인들이 예수에게 다가와 물었다. "모세는 말하기를, '남자가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줄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일곱 형제의 사례가 있습니다. 첫째 형이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어서 그 아내가 동생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자식 없이 죽었고, 셋째부터 일곱째까지 전부 죽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 여자는 일곱 형제 모두의 아내였는데,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가 대답하였다. "너희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도 모른다. 부활 때에는 결혼할 일이 없으며, 사람들은 천사들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기쁨을 나눌 것이다. 성경에 이르되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다. 현재도 살아 계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

▲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_**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의 세금 문제로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였다. **루벤스 작품**

예수의 대답을 들은 사두개인들은 더는 질문하지 못하였으며, 이들의 대화를 들은 모든 사람은 예수의 가르침과 지혜에 크게 감동하였다.

가장 중요한 계명 마 22:37~40

예수에 압도당한 사두개인들의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를 공격했다. 그들 중에 한 율법 학자가 예수를 궁지에 몰고자 질문을 던졌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에 예수는 말하였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또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계명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하나님의 율법과 모든 예언은 이 두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예수의 명쾌한 답변에 질문한 율법 학자가 할 말을 잃자, 이번에는 예수가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에게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되받아 물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예수의 질문에 기가 막힌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할 말을 잃었다. 성경 문자주의(文字主義, 성경의 문자 기록만을 절대화하여 기록된 그대로 따르는 것)에 빠진 그들은 예수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논쟁에서 또다시 체면을 잃기 싫어서 더 이상의 질문을 하지 못했다.
예수는 제자들과 그 곁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다.

◀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 지도자들_**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방해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민심이반을 염려해 예수를 제거할 음모를 꾸몄다. **목조 부조 작품**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는 능통하다. 모세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너희는 잘못될 일이 없다. 그러나 그들의 행실을 본받는 것은 조심하여라. 그들은 말뿐이요, 그 말을 마음에 새겨 실천하지는 않는다. 모두 겉만 번듯한 가식이다. 그들은 너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면서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여 도와주지 않는다. 그들은 잔치에 가면 상석에 앉고,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사람들이 치켜세우는 말을 좋아하고, '랍비'나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임받을 것이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그들은 위선과 가식이 가득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가로막아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비록 그들의 겉모습은 깨끗하나 그 속은 더럽고 방탕하며 온갖 탐욕으로 가득하다."

예수를 공격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의 답변에 망연자실했다. 그러나 이들과의 논쟁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은 예수의 가르침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광림뉴스레터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구약성경〉

빛의 숲 서점 판매 중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편집인 유용찬 | 위원장 박영준 | 편집디자인 유심원 | 후원 남선교회총연합회·실업인선교회
기자 | 김혜경 박신애 박희윤 백명순 변영혜 소현수 안미영 유병권 위선미 이득섭 이상희 이정순 한혜선 | 편집 문화홍보실 | 인쇄 현대원색문화사
www.klmc.church에서 e-book 또는 https://www.facebook.com/kwanglimchurch으로 광림뉴스레터를 볼 수 있습니다